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계 제25115호] 주제 104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
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부부장 조용원동
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
준동지, 국방위원회 설계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부문과
양묘장의 일군들이 맞이
하였다.

지난 5월 이곳 양묘장



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애국심을 더욱 분발시키
기 위한 교양사업을
즐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
복구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양묘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
장은 단순히 나무모를
생산하여 보장하는 끗이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에
서 주공전선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 자신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을 찾아온것은 이곳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
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키기

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현실로 꽂아
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관철
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
였으며 수십여종에 달하는 종자도 보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펼쳐나선 해당
부문과 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수종

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풍토순화시키고
경제적 및 관상적 가치가 큰 나무모생산을
늘여나가는 한편 야외재배장과 비닐박막
온실들을 새로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양묘
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묵목온
실, 원형삽목장, 야외재배장, 비닐박
막온실재배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
면서 양묘장의 관리운영정형을 료해
하신 다음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복구
전투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1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인것
만큼 한두해 나무를 심어보고 성과가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하여 맥을 놓아
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비록 고생하더라도 푸른 숲 우거진 조국
산천의 래일을 생각하며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가 실현되면 후대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먼 후날 후대들은 나무심기를 국가적인
중대사, 전략적목표로 내세운 우리 당의
정책이 얼마나 정성하고 끊임없는가를 푸르
려 설레이는 나무들을 보며 이야기할것이
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와
사회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비등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은
지난날 낡은 지식과 방법으로 얻은 경험
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기
술의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지식경제
시대라고 하시면서 122호양묘장을 나무
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
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
적인 양묘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리자고
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봄과 가을철에만 식수를 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당의 의도대로 사철 나무를 심자고 해도 그렇고 나무의 사률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자 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함으로써 122호양묘장을 적은 생산면적과로력을 가지고 한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토지 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보급거점,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주는 양묘장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 대가 양묘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기차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건설력량투입에 이르기까지 122호양묘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직접 풀어주시는 은정김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 대에서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체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양묘장으로 보란듯이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가 꼭 해야 할 만년대 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일감을 스스로 찾아안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

서 이것이 바로 보람이고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라보시며 이 지구가 6개월후면 천지개벽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부를 창조하고자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비엔리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풀 말리 싸이 나 쓰 동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라오스인민혁명당과 협체적이며 친선적인 라오스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귀국의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날을 당신들과 함께 경축하면서 우리 두 당, 두 나라가 홀륭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고 있는데 대하여 데우며 대목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라오스정부와 인민이 자력, 자강, 애국주의의 기치높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정확한 조선과 정체 그리고 높은 령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가꾸어주신 깊은 혈족적부리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이며 이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라오스당과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의념을 고수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광고발전시키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루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평 양

주제 104 (2015) 년 12 월 2 일

인디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결성

인디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회가 최근 뉴델리에서 결성되었다.

연구회 위원장으로 인디아 멘

파트카크, 부위원장으로 인디아 멘
리종합대학 교수 박사 알로크 카라
가, 서기장으로 아시아지역 주체사
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파가 선

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 우리 당을 우러러 러친 환호성 – 사회주의 만세!

뜻 깊은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불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불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추억 깊은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온 나라 정당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퀴어운 우리 어린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

누구에게 라없이 물어본다. 유흘에 가장 큰 불을 받아온 사람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고, 그러면 누구나 자신이라고, 습하고 당당히 대답할 것이다. 새해 정초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 된 일터에 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원산구두장과 같은 회관에 차운 원수님의 모습은 한 사람에게는 한복을 입은 아버지의 친근한 음성 속에 밝아온 주제 104(2015)년은 그 하루하루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설 같은 정과 사랑의 흔속이었으며 당기발의 세찬 펄럭임 속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져 꿈없는 감격의 한해였다.

그로부터 엄청난 피폐 앞에 무

들에 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어버이의 친근한 음성 속에 밝아온 주제 104(2015)년은 그 하루하루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설 같은 정과 사랑의 흔속이었으며 당기발의 세찬 펄럭임 속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져 꿈없는 감격의 한해였다.

피폐 복구 문제를 중요하게 제

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 군대가 전적으로 말아 당창건기념일 전으로, 피폐 복구 사업을 완전히 끌어내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또다시 터여난 북국의 그 나날을 우리 어이

우수님의 품에 안긴 육아원, 애육원

을 해에 새겨진 인민 사랑의 이야기를 더듬으며

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던 사람들

을 때고 온 나라가 마음 함께 부르고

사회주의 바다왕기, 파일왕기

리』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

의 주제가로 그리도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울려펴지는 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세상을 놀라우는 기적과 사변 속에 훌려온 한해와 더불어 미주 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심장마다

에 넘쳐나는 환희, 그것은 더 좋

은 메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만이 알고 사는 회망이다.

이제 또 어떤 행복이 차례지겠

는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행복을 마중

가는 인민의 가슴속에 절세적인

의 심장의 웨침이 꽂혀온 메이리

치면 10월의 경축광장이 못 있

을 추구해 배고풀새와 꽂임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은 얼마

나 눈물겨운 것인가.

여기 큰물이 훌쓰는 위험한

시각에 수십명의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일하던 건물로 대피하도

록 도와주고 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나타나온 것은 청양군에서

같은 사랑과 정이 담겨져 있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록에 소중히 푸어안아

온갖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당

의 진모습이 모두 실수 있도록 자신의 성의를 바쳤다.

그 토로 웃심길고 다심한 사랑

과 정에 떠날들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과 또 하나의 원인의 궁

전으로 일어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끼은 명당자리에 합각지

봉을 얹은 청양양로원이 민족의

항우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 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민들이 밟아인은 사랑

과 운정은 또 얼마나 커졌다.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각각 눈앞에 밀려

들면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일밤, 5일낮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아끼는 사람들�이 바로

큰물에 허우적해 한지에 나았는 라선

시민들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그 외국인은

온갖을 젖어들며 끝까지

나타나온 것은 바로 우리

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온 한해 인민을 위한 멸사

복무의 길에 새기신 헌신의 자족

자욱이 그대로 글발이 되어

울려퍼진 것이다.

말그대로 멸사복무의 한해였

다. 인민을 위해 그이께서는 이

한해 얼마나 멀고 먼 길을 걸으

시켰던가.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여러차

례나 찾으셨었고 미파학자거

리진설장을 하늘에서도 보시고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도

보시였다.

완공의 그날에 나와보시여도

되시면만 인민에게 안겨줄 재부

여서 단 한걸 터제로 있을세

라 자신께서 직접 나와보시고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을 인민은 평양양로원건설장에

서도 빠았고 파악기술전설장에

서도 놀라움에 맞이하였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

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제도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모략소동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끈질기게 벼여달리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 도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날조된 자료들로 그 무슨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 정치화 하려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꺼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에 존재하는 것처럼 퍼뜨려 그것을 유엔무대에까지 끌고 가며 혼란화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위이며 사실이 아님을 사실로 밝혀졌으며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 간 종통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국도의 정치적 혼란과 해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빠져든 것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을 위한 구실로 악용해온 결과이다.

몇 해 전부터 미국은 중동지역을 자들의 손에 떠나기 위하여 뉴욕, 리비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불순세력을 들여주며 정부정부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보장을 위

한 모든 범죄로부터 차단들을 마련하고

그를 실생활에 구현하고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처럼 악랄한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박동지에서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친밀한 부당하다는 것을 사실로 밝혀주고 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우려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목적은 단체로 있지도 않은 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미칠 수하고 나중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군사적 유행으로 말살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인권문제》를 끌어들여 내비방증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 대상은 민족주권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1990년대 양국이 《인권옹호》

미국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군사적 개입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수법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우리에게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무질서를 막고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주주의》로 단

으로 결고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른화하고 국제적인 악력을 들이댔다. 《인권옹호》를 운운하며 인민의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이 불어내는 소리를 들을 《자료》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이라는 그것들이 하

나같이 제 교향에서 범죄를 일삼아 제

친혈육들에게서 까지 베낄 밭과 도주한 반

인, 인간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구차스러운 진명을 부지하기 위해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미국이 바

려는 것이라면 없는 사실도 꾸며내며 아

무 소리나 망령 체대고 있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놓고 미국도 우리에게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곡된 여론을 내밀리며 국제무대에서 악정을 돌구어내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는 것을 험악히 알면서도 억지를 쓰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고 비난을 하

는가 하면 유엔에서 국제 협력과 판소로

워워하는 살피자적인 방법까지 늘어

놓고 있다.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은

《인권옹호》로 물어 《인권옹호》의 미명

하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

걸고들며 주종세력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해 나섰다. 이것을 막

아내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민족과 종족간, 교파들을 향한 혐오적인 분분이 일어

났으나 무정부주의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달려들게 되었다. 술한 사람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말 그대로 《인

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피난민위기

가 초래되었다. 어떤 나라는 국도의 정

직적인 혼란 속에 빠져 국가 자체를 유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떠난

《인권》소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그

후파가 얼마나 파국적인가 하는 것을 웅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미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

의 구실밀이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간섭

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남조선은 1990년대 그네네이더와 바

나마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

으킨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